

정읍시 지방채 제로시대...올해 428억 상환

10년 앞당겨 조기상환...이자 49억여원 절감

정읍시가 올해 '지방채 제로시대'를 연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 428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올해 예산 68억70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제1회 추경에서 359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올해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의회는 지난 21일 정읍시에서 제출한 7755억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10년 앞서 조기상환하게 됐으며, 지급예정인 49억여원의 이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이자 절감액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2009년 말 기준 749억원에 이르던 지방채를 지난 2010년 민선 5기 김생기 시장 취임 이후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

라 매년 평균 44억여원씩 상환해왔다.
민선 5~6기 정읍시를 이끌고 있는 김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채 제로화'를 선언했으며,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재정운영 자가진단(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 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철도산업특화단지과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백

제가요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방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를 감축,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정현안 사업 중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정읍의 지방채 제로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1974 백동마을 사계' 특별사진전

내달 21일까지 나주백암리고분전시관

나주백암리고분전시관(관장 이정호)은 "지난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특별사진전 '1974 백동마을 사계'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지난 1974년 유명기 경북대 교수와 시마무츠호코 일본 토호쿠 대학교수가 1년에 걸쳐 조사한 인류학 기록사진을 동시대 영산강 문화연구센터와 지역 향토사학자, 다 시면 백동마을 주민이 함께 분류·선정해 이뤄졌다.

사진들은 백동마을 사계를 '봄-모내기', '여름-장터와 울력', '가을-추수와 수매', '겨울-혼인과 장례' 등으로 구성해 당대 주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시관은 나주를 비롯한 전남 각 지역의 과거 기록사진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만5000여점의 근현대 기록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정호 관장은 "전시관이 단순 전시 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해 지역



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백암리고분전시관은 지역 문화발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시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이며, 북암리 3호분 모형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문의 061-337-0090) /나주=손영철기자 ycsn@

"출항 준비 끝~ 카누 즐기러 오세요"

순창군, 내달 5일부터 무료 체험

순창군 무료 카누체험교실이 올해 출항 준비를 마치고 5월 5일부터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체험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카누 체험교실은 그동안 적성면 섬진강변에서만 진행되던 것을 5월 한달은 읍내 경천에서 진행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카누체험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카누체험은 5월과 9월, 10월 3개월 동안 주말과 휴일에 진행된다. 5월은 경천변 향교 앞 징검다리에서 교하 취입보까지 구간에서, 9월과 10월은 적성면 운림리 환단 세월교에서 무수 취입보 섬진강변까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최윤화 섬진강수상레저연맹 회장은 "많은 군민들이 강바람도 느끼면서 카누 체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민과 관광객들이 무료 카누체험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교통약자의 발' 나주 100원 택시 만족도



주민 1004명 대상 설문...편익증진·비용절감 장점 꼽아

응답자 85% 운영방침 만족...62% '장시간 대기' 불편

나주시가 시민중심 체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10일 간에 걸쳐 주민 1004명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만족도 설문

지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 조사에서 주민들은 이용권을 주로 병원이나 시장을 오가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명 이상의 동승률도 82.8%에 이르는 등 이용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약자의 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100원 택시 이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으며, 응답자의 85%가 택시 이용과 운영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용 시 불편사항은 '장시간 대기'가 응답자의 62%를 차지했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개선사항으로 건의됐다.
나주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

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146개 마을,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소재지와 여객터미널까지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0원 택시 이용은 총 10만2432대로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편사항 개선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며 "앞으로도 100원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해내는 시민체감향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5월 남도 전통술에 강진 설성만월막걸리

전남도는 강진 병영주조장의 '설성만월막걸리'를 5월의 남도 전통술로 선정했다.

'설성만월막걸리'는 전남도 친환경막걸리 공동브랜드로 사용되는 '만월'로 강진 도암면의 윤정인 유기농쌀생산명인과 계약재배한 100% 유기농쌀로 빚는다.

유산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올리고당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그 빛깔이 우유처럼 하얗고 맛이 담백하다. 특히 국내 최초의 유기농가공식품 인증을 획득, 소비자들로부터 명성이 높다.

또 '만월' 브랜드는 전남도가 막걸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 및 용기 디자인 등록을 했다. 친환경유기농쌀로 만든 막걸리를 전남도가 보증하는 친환경 공동브랜드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 허가를 해오고 있다.

강진 '설성만월막걸리' 1병(750ml)당 2000원이며 인터넷(www.byjuio.co.kr) 또는 전화(061-432-1010)로 구입할 수 있다.



김경식 대표는 20세에 술 만들기엔 입문해 지난 59년간 오로지 좋은 술 제조를 고집해온 장인이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병영소주 제조기능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우리 전통술 제조업체도 일본 사케, 프랑스 와인 등 외국 주류 제조 기업처럼 100년 이상 운영하는 장인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남도만의 우수한 전통술 명맥 유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항)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9천
6.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항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4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팬션과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천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천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 팬션·전원주택·별장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주루 유향전시관미)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음 11억

투자·매도·교환

- 장흥과 보성군 국도점(장흥군) 5만여㎡ 분할해서 평당 28만원
- 독립섬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0㎡ 투지에 양호한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4천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상가기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속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용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내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운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은 공실임, 은행 2억천 보증금 9300 월 350선 3년전 건물 매도 6억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